

# 영적지도자 100인 중 달라이라마 1위

## 불교적 성향 인물 다수 선정

전세계 현존하는 인물 중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이는 과연 누굴까.

영국 왓킨스 북(Watkins Book)서 발행하는 잡지인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Mind Body Spirit Magazine)>은 최근 현존 인물 중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 발표했다.

100인 가운데 불교적 성향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은 달라이라마(1위), 틱낫한(3위), 디팍 초프라(4위), 앤드류하비(33위), 페마 초드론(55위), 소갈 린포체(64위), 사트야 나라얀 고엔카(86위), 존 카밧진(94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왓킨스 북이 발표한 100인의 선정 기준은 >현존하는 인물 >세계적으로 특별하면서 영적으로 공헌을 한 인물 >구글에서 자주 검색됐으며 닐슨 데이터(Nielsen Data)에 자주 등장해 블로그서 조명 받은 인물 등이다.

특히 디팍 초프라(Deepak Chopra)는 심신상관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자이자 영적 지도자다. 인도 출신인 그는 하버드 의대서 공부하고 고대 인도의 전통 치료 과학인 아우르베다와 현대 의학을 접목해 '심신상관과학(MIND-BODY MEDICINE)'이라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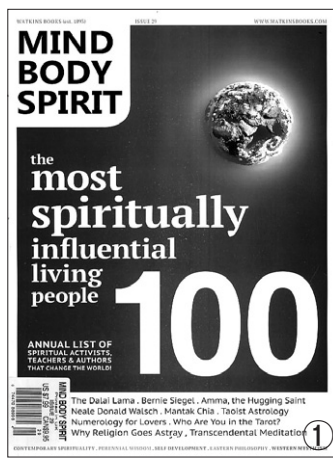
야를 창안하며 대체의학의 선두 주자가 됐다. 그는 <사람의 아들 붓다> <죽음 이후의 삶>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는 인도 출신의 영국인 명상 수행가이자 시인이며 작가다. 21세에 옥스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그는 틀에 박힌 영국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25살에 인도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저서 <라다크에서 만난 부처>에서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린포체(Thuksey R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페마 초드론(Pema Chödrön)은 티베트 불교 최초로 금강승 수행을 마친 미국인으로 현재 서구인들을 위한 티베트 불교 사원 감포 아베이(Gampo Abbey)의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마음 전문가'로 불리는 그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불교와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소갈 린포체(Sogyal Rinpoche) 역시 티베트 불교의 핵심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어린시절부터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연구했다. 그는 일상의 체험과 붓다의 지혜를 연관시켜 불교의 가르침에 함축된 진리를 생생히 일깨운다.

존 카밧진(Jon Kabat-Zinn)은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병원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의



①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이 선정한 영적지도자 100인 중에는 ②달라이라마 ③틱낫한 ④디팍초프라 ⑤앤드류하비 ⑥페마초드론 ⑦존카밧진 등 불교 수행자들이 포함돼 있다.



설립자이자 감독자며, 동 대학의 예방 및 행동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만성 통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인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를 만들고 이를 널리 보급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숭산·틱낫한 스님으로부터 불교를 배운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주제로 100인을 선정한 왓킨스 북은 "지난해 발표된 100인인 사람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았다. 이번 리스트 선정에서 우리는 500명 정도로 가능

한 많은 후보자를 포함시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목록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왓킨스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Mind Body Spirit Magazine)>은 1893년에 설립된 런던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서점인 왓킨스 북(Watkins Book)에서 발행하는 잡지로 영성, 밀교, 종교와 관련된 책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 잡지는 달라이라마를 칭송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아시아불교 섭렵한 화엄학의 대가

### 세계의 불교학자(20)

로버트 지멜로 美 노트르담대 교수



로버트 지멜로(Robert M. Gimello · 75) 美 노트르담대 교수는 세계 화엄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학자다. 그는 선(禪), 천태, 법화, 정토 등 여러 종파의 불교뿐 아니라 인도·중국·한국·베트남·일본에 걸친 아시아국가의 불교를 섭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제자들이 기독교 신학과 종교학 속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지멜로 교수는 학부와 석사를 세튼홀대(Seton Hall University)에서 마쳤고, 1976년에 컬럼비아대에서 <지엄(602-668)과 화엄불교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에서 3년간 중국불교를 가르친 후, 다펜스대학, 산타 바바라의 캘리포니아대,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등 수많은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아리조나대에서는 동아시아학부 학장, 인문학부 임시 부총장, 프랑스 이탈리아 학부 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지멜로 교수가 신학 및 동아시아 언어·문화 연구 교수로 부임하고 있는 노트르담대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톨릭 대학 중 하나다. 가톨릭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와 그에 관련한 종교 학문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이 대학은 지멜로 교수가 부임하면서 불교 학문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지역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지멜로 교수는 서구권에서 인정받는 불교학자다. 1976년도 박사논문이 아직까지 화엄을 공부하는 수많은 학자들에게 인용돼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의 명성을 알 수 있다.

"저는 비교신학과 불교간 대화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그 대화를 통해 가톨릭 신학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견해를 갖고 싶습니다."

노트르담대 부임 당시 인터뷰에서 지멜로 교수는 종교간 대화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종교간 비교를 통해 불교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의 생각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으로 수십년간 경전과 주석서 위주로 공부해오다 최근 불교와 기독교에서의 성상(聖像)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비교연구를 하기도 했다.

종교간 성상을 비교 연구한 그는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교의 여러 가지 상(像)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예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교형상의 미적, 형식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팔목할만한 가치있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요소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는 아직 미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방 기독교 정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전통을 주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정교하게 발전한 성상신학(聖像神學)이 도입되면 불교형상을 연구하는데 적용할 만한 언어나 관점을 불교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그는 동방정교의 성상 이론이 불교 성상에 있어 불교만의 독특한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게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시험해 나가고 있다.

노트르담대 부임 전 1999년부터 하버드대 방문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 지멜로

박사논문 많은 학자들 인용  
가톨릭대에 불교학 싹 틔워  
신학·불교 비교연구 관심

교수는 하버드에서 불교학을 양적·질적으로 높은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당시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으며 매년 종교학과와 동양학과에 최소 2~3명의 학생들이 그의 밑에서 공부하기위해 들어왔다.

그의 명성은 한국에까지 소문나 2007년 조계종단과 한국불교학자들과 교류를 시작으로 고려대에서 중국불교학을, 서울대와 기타 대학에서도 관련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지멜로 교수는 한국불교학발전에 대해 제안을 하기도 했다. "불교학은 수백명의 학자들이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당히 인기 있고 깊이를 갖춘 분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불교전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한국불교대학과 불교 교단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 한국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직 자리가 미국의 주요 대학에 마련돼야 하고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기금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나는 기자

## 생명 존엄성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 SGI 다이사쿠 이케다 회장 제안...UN 리오 대회 주목

6월 6일 Soka Gakkai International (SGI) 불교협회의 다이사쿠 이케다(Daisaku Ikeda) 회장은 "지속가능한 국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개인과 지역 사회의 권한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6월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오+20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Rio+20 UN Conference)'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국제 사회를 위해: 권한 부여와 리더십 학습(For a Sustainable Global Society: Learning for Empowerment and Leadership)"이란 제목이 붙은 이 제안서는 교육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케다 회장은 2014년에 종료되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을 열렬하게 지지했으며, 긍정적인 변화 주체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춘 후계자 틀, 즉 2015년에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국제 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권한 부여 및 그것을 넘어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

이케다 회장은 발전과 환경 보호 임무를 맡은 유엔 기관들의 원대한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하나의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기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엔 개발 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와 유엔 환경 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및 이들과 관련된 기관들의 통합을 제안한다.

이케다 회장은 평생 학습과 실천을 위한 장으로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필요성을



이케다 회장(오른쪽)이 브라질에서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로로 현지인들에게 공로패를 받고 있다.

강조한다. 전형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나무 심기, 재난 방지 노력, 지역 생산과 소비 강화, 재활용 홍보 및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촉구 등이 있다.

다이사쿠 이케다 회장은 불교 철학자, 저자 및 평화 구축자다. 그는 1970년대부터 평화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대화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해왔다.

오종욱 편집위원

## 러 종교인, 16년간 14% ↑

지난 16년 동안 러시아의 신앙인 수가 14% 증가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VTSIOM)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등 신앙인이 1996년 57%에서 올해 71%로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8~19일 러시아 전체 46개 지역 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주민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소에 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7%, 가끔 간다고 표시한 사람은 30%, 간혹 간다고 답한 사람은 34%였다.

이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소에 간다고 응답한 사람이 7%, 가끔 간다고 답한 사람은 30%, 간혹 간다고 답한 사람은 34%였다. 1996년에는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각각 5%, 20%, 32%였다.

반면 예배소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6년 42%에서 올해 26%로 줄었다. 러시아는 국민의 75%가 정교회 신자로 기독교 계통인 동방정교회의 전통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불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신자들이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